

靑, 소폭 개각... 향후 정국 어떻게

경제팀 안바꿔 여야 대치 되레 심화

野 강력 반발... 개원협상도 악영향 미칠듯
민심 이반 땀 쇠고기 논란 더 확산 가능성

청와대가 쇠고기 정국의 책임을 물어 3명의 장관을 교체함에 따라 쫓붙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라인 교체를 요구해 온 민주당 등 야당에선 "진정성 없는 오만한 개각"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여야간 대치정국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 소폭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졌다. 2차례의 쇠고기 추가협상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 교체를 통해 사태 어느 정도 수습한 만큼 소폭 개각으로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새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던 개원 협상도 다시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국회 부재' 상황이 더 오래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기에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현실 문턱도 크게 신경을 썼다는 후문이다. 인사 청문 과정에서 자칫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도덕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정권 전체가 다시 한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치정국 심화 우려=정치권에 서는 이번 '7·7 개각'에 대해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심에 따라 쇠고기 파동 논란이 진정되기는 커녕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민주당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이 경제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하는 한편 이철수 경찰청장과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혼란스러운 시국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도 국정쇄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은 총재는 "내가 총사퇴를 받아들인 대통령의 취지가 무엇인지 국민들을 의심스럽게 만든 인사였다"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한 달 가까이 내각 개편을 미뤄오던 정부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두 세명 교체'로 공수를 부리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전면 개각을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개각에 대해 경제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개각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경제팀 유임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소폭 개각이 민심의 싸늘한 반향을 받을 경우 최근 들어 약화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촛불이 다시 한번 거세게 타오를 개연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이종관 대변인이 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개각안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심 이반 땀 쇠고기 논란 더 확산 가능성

민심 이반 땀 쇠고기 논란 더 확산 가능성

올 들어 자장면과 휘발유, 등유 등 '먹고·타고·배우는' 품목들의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먹고·타고·배우는’ 물가 환란 이후 최고 상승률
경유 33%·라면 13%·학원비 7% 올라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불안이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서민들의 가계운영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의 차량연료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7%나 뛰었다. 이는 올 상반기 전제 소비자물가 상승률(4.3%)의 5배를 웃도는 것으로, 지난 1998년(30.6%)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휘발유는 올 상반기에 16.7%나 올랐다. 트럭 등 서민들이 많이 쓰는 경유도 올 상반기에 33.1% 올라

지난해 상반기 상승률(0.6%)의 55배에 달했다. 광주의 경우 6월에만 등유값이 11.6% 뛴 것을 비롯, 경유(7.3%), 휘발유(4.4%) 등 유가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외식물가도 올 상반기에 3.6% 올라 지난해 상반기 상승률(2%)을 크게 웃돌았다. 품목별로는 자장면과 라면 등 서민들이 주로 찾는 품

목이 크게 올랐다. 올 상반기 자장면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1.3% 올라 1998년 상반기(19.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라면 가격도 올 들어 13.2% 뛰어 1998년 상반기(20.8%)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광주는 삼겹살 외식비가 6월 한 달간 8.3%나 올랐으며, 돼지고기(5.7%), 된장찌개(4.7%) 등 전반적인

외식비가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크게 늘었다. 올 상반기 전국의 보습학원비는 평균 6.9%나 뛰면서 1998년(10.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올 상반기에는 광주·전남 등 전국의 대입 학원비와 사립대 납입금 상승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올 대입 단과반 학원비는 6.1% 올라 1997년 상반기(7.6%)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사립대 납입금도 7.3%나 올라 사립대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7·7개각 장·차관급 프로필

안병만 교과부 장관: 한국외국어대 총장을 두 번이나 역임한 행정학계의 원로학자이다. 인간관계가 원만해 따르는 제자들이 많지만 일처리에서는 공사 구분이 명확하다는 평. 외대총장 두차례... 행정학 원로: 1994~1998년과 2002~2006년에 각각 한국외대 5대, 7대 총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용인외고와 사이버외대를 설립했다. 부인 박정희(68)씨와 1남1녀. ▲충북 괴산(67) ▲경기도 ▲서울법대 ▲한국외대 총장 ▲대통령자문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장태평 농림장관: 경제기획원과 재경부 등에서 예산, 세제, 정책홍보 등 업무를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다. 농식품부(옛 농림부)와는 지난 2004년 초 '국장 교류제'를 통해 1년8개월동안 농업정책국장, 농업구조정책국장을 맡으면서 인연을 맺었다. 부인 강명희(58)씨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전남 무안 출신 정통경제 관료: ▲무안(59) ▲경기도 ▲서울대 사회학과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농림부 농업정책국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전재희 복지장관: 여성 최초의 행정고시 합격자로 공직사회의 여성관련 각종 기록을 갈아치웠다. 1995년 지방선거에 출마, 여성최초의 민선 시장에 선출되는 등 '최초'의 기록을 쌓아왔다. 여성 최초 민선시장 역임: 정계에는 16대 국회 당시 비례대표로 입문했다 임기중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통해 지역구 의원으로 재진입한 진기록도 세웠다. 남편 김형률(58)씨와의 사이에 1남 1녀. ▲경북 영천(59) ▲영남대 법정대 ▲경기 광명시장 ▲16, 17,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김형식 감사원장: 1972년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하고 정통 엘리트 법관 코스를 밟았다. 광주지법원장 재직시 법원 내부 통신망을 통해 매주 전직원에게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느낀 소회 등을 e-메일로 보냈는데 직원들이 이를 모아 '지산통신(芝山通信)'이란 책자를 펴내 화제가 됐다. 부인 차성은(58)씨와 1남 1녀. ▲장성(60) ▲광주제일고 ▲서울법대 ▲서울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 ▲대법관

김대모 노사정위장: 합리적 상품에다 선이 굵은 태입으로 대인관계가 원만. 노동계와는 지난 1992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인 연을 맺었다. 6·3사태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공대 학생회장을 동시에 맡아 법대 학생회장을 지낸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함께 학생운동을 했다. 부인 진양희(63)씨와 1남2녀. ▲평안(65) ▲서울고, 서울대 화학공학·경제학 ▲중앙대 정경대 학장 ▲대통령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문민정부 실세 중 실세: 김덕룡 국민특보: 문민정부 시절 실세중의 실세로 불리던 전직 5선 의원. 영문 이니셜 'DR'로 유명하다. 부인 김열자(66)씨와 2남. ▲전북 익산(67) ▲서울대 ▲13~17대 국회의원 ▲정무제1장관 ▲한나라당 부총재 한국일보 부사장 거친 언론인: 이성준 언론특보: 한국일보 견습기자로 출발해 편집국장 겸 편집인, 대표이사 부사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 부인 윤영희(62)씨와 2남. ▲서울(63) ▲서울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소비자 보호 기본법 토대 마련: 김동수 재정부 1차관: 1978년 행정고시 22회로 관가에 발을 들였다. 물가 부문을 담당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의 토대를 닦았다. ▲충남 서천(54) ▲고려대 ▲美 하와이대학원 경제학 박사 ▲기획재정부 차관보 다자외교 정통 국제법 전문가: 신각수 외교부 2차관: 손꼽히는 국제법 전문가로 유엔 차석대사 등을 역임해 다자외교를 관장하는 제2차관에 적임자라는 평. 부인 홍소선(50)씨와 1남1녀. ▲충북 영동(53) ▲서울대 법학과 ▲아주국 동북아 1과장 ▲주 유엔대표부 참사관

생존권 수호를 위한 광주 택시업계 호소문
정부와 광주광역시시는 택시업계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하라
우리 택시업계는 정부의 세시정책 실행과 2008년도 기준 GDP 평균 가파른 7.5%에서 2008년 7월 현재 1,016.6%로 인상되어 택시업에 불가항력 지장해 커지게 되었다.
광주 택시업계 시업자와 종사자들은 생존권 수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유지사업비 50% 인하 요구: 택시업계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간 유지사업비를 50%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한다.
택시 요금 현실화: 택시 요금은 택시업계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실화 되어야 한다.
정통 택시업계 보호: 택시업계는 정통 택시업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통 택시업계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구한다.
택시업계 보호: 택시업계는 택시업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택시업계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구한다.